


# 이스라엘의 레바논 즉각 철수를 위한 반전 집회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이스라엘군은 즉각 레바논을 떠나라  
UN 결의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반대



일시 : 8월 26일(토) 오후 4시  
장소 : 시티은행 본점 앞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  
청계광장에서 광고 방면 100m  
- 뒷면 약도 참조)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문의 : [www.antiwar.or.kr](http://www.antiwar.or.kr)

9.23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반전 행동

일시 : 9월 23일(토) 오후 3시 / 장소 : 서울 도심 /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이스라엘군은 즉각 레바논을 떠나라 UN 결의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반대

레바논 전쟁에 관한 유엔 결의안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레바논 헤즈볼라에게는 “즉각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공격적 군사 작전[만]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동안 자신의 끔찍한 학살을 모두 “방어적” 작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파병될 유엔 평화유지군은 레바논의 ‘주권 회복’과 ‘구호 활동 지원’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와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레바논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파병 역시 ‘평화’와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군 파병을 반대합니다.

유엔 결의안 통과됐다고 해서 부시와 이스라엘의 전쟁물이에 맞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즉각 전면 철수할 때까지 한국 정부의 파병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항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8월 26일 반전 집회에 참가합니다.

